

루이스 바라간 건축의 색채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

유 연 숙[†]

계원예술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Color use Scheme in Luis Barragan's Architecture

Yoo Yeon-Sook[†]

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Kaywon Art University, Uiwang 437-808, Korea

Abstract: Luis Barragan's Architecture has creative feature that Mexican environment and traditional culture were complete by color. Thus the color of his work makes our emotions rich and colorful. He said "My architecture is autobiographical..." at speech in Pritz prize. As we can see in his architectural philosophy that sentimental architecture is important than theoretical system, his works are impression of empirical factor with intuition. "Color is a complement to the architecture. It serve to enlarge or reduce a space. It's also useful for adding that touch of magic a place needs", stated Barragan. During his process of shaping space, Barragan drew on color in the same way as an architectural component, according it a spatial funtion and expressive vale. he allied it with light, deeming it a crucial vehical for conveying the emotive attributes a site. The capacity of color to express sensitivity and sensuality within an architecture space is liked to its psycho-physiological qualities. In this kind of view, color feaytre in Barragan's wor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to realize sentimental architecture, not only is result of the Mexican regional color. As a result, make focus on analyzing various meaning of the color in Barragan's architecture like poetic and habitable structure.

Keywords: *the Harmony of nature and architecture, flexible color, the physical properties of color psychology, interaction of color and space, color due to the emphasis on form*

1. 서 론

건축색은 환경적 특성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에 있는 사물을 강조하거나 조화를 이루게도 한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색채사용은 그 지역의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an)은 혼혈 멕시코인이었지만, 유럽 문명에 속하지 않는 제3세계에서 나서 유럽문명에 신대륙 문명의 개념과 메시지를 혼합해 그만의 독특한 건축 세계를 구축한 멕시코 건축가이다. 그의 건축은 멕시코의 자연환경과 라틴의 전통 문화유산이 색의 혼적으로 완성되는 독창적인 건축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완성한 건축물의 색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든다.

그의 초기의 건축물은 국제주의적 스타일 건축

2013년 9월 15일 접수; 2013년 10월 19일 수정; 2013년 10월 19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유 연 숙 (yeons36@hanmail.net)

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스타일 속의 평범한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멕시코 특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기후를 잘 소화하여 현대의 어느 건축가보다도 건축에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건축 철학 속에는 멕시코의 역사와 지리가 현대 문명과 혼합되어 멕시코만이 이를 수 있는 독특함과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라간의 주요 작품들은 멕시코 만의 전통과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절제된 공간들이 멕시코 정취를 엮어내는 편안함과 원색적인 색채와 조화를 이루는데, 색채는 그의 독특한 건축언어이다.

“색채가 건축을 보완한다. 색채가 공간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킨다. 색채는 어떤 장소를 마술적 터치를 첨가하는데 유용하다”고 그는 말했다. 공간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는 공간적 기능 그리고 표현가치에 따라 다른 건축적 요소와 같은 방법으로 색채계획을 하였다. 그는 색을 장소의 정서적 속성 전달을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여기고, 색과 빛을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의 건축공간에서 감성과 감각표현에 대한 색채의 역량은 그것의 물리, 심리적인 특성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바라간이 그의 건축에서 사용한 색채 사용방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색의 측정은 제외하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라간의 건축에 나타난 색채특성은 단지 멕시코 지역색에 의한 것만이 아닌, 그의 건축철학인 감성적 건축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표현도구이다. 따라서 그의 시적이고 거주할 수 있는 조각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 건축물에서 색으로 공간의 기하학적 형태 형성과 강조, 색채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을 공간, 빛 그리고 자연 환경과 조화된 색채 사용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 멕시코의 문화와 건축적 특성

2.1. 멕시코 문화

중남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온 멕시코는 한 때 찬란한 고대 문명으로 중남미 일대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지녀온

나라이다. 1521년 스페인 정복 하에 들어가 3백년에 걸친 오랜 식민생활을 겪어야 했고, 마야 유적 등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들은 아메리카 인디오들로 몽고계 인종에 속한다.

멕시코 문화는 정복자 Cortes의 부대가 침략해 스페인 식민문화(1519-1825)가 이식되기까지 2천여년 동안 중앙아메리카 문화를 형성하였다. 스페인은 비록 멕시코를 정복하고 이전의 문화를 파괴하였지만, 종교적인 개종과 상호 결혼을 통해서 정복을 정당화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적이라 부르는 혼혈적인(Mestizo) 문화 즉, 두 개의 융합된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은 서로가 동시에 경합하면서 보충하여 완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멕시코 사람들의 개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멕시코 문화는 다양한 개념, 반대되는 생각, 대조와 개인적인 표현에 대해 존중하도록 교육되며, 이것은 멕시코 건축의 특이함 속에 표현되어 있다(이 1997).

2.2. 멕시코 건축의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조작과 의미생산은 일반적으로 태양을 풍부하게 받는 지방의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멕시코 내에서 이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신민중주의(New-Populism)와 신헌리주의 흐름의 안으로 통합되어 왔다. 또한 멕시코 건축의 발전에 계속적인 자극을 준 화가와 조각가로는 Mathias Goeritz, Manuel Feliguerz 등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멕시코 건축은 회화적인 요소가 가득하고 조각적 조형요소가 다른 예술과의 연장선상에 놓이게끔 되었다. 이런 종류의 예술영역에서 열렬한 상호작용이 멕시코 건축의 전통회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이 1997).

다른 나라의 건축과 비교해 볼 때 멕시코 건축은 첫째, 건축형태에서 나타난 조소성이 대부분 기하학적 육면체와 평지붕에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 건축기술이나 신재료의 사용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Felix Candela를 비롯한 몇몇 구조기술의 발전을 제외하고는 미비한 편이며 셋째, 합리성이나 근대적 기능성에 근거한 모더니즘보다는 문화관습과 전통성에 기초를 둔 민속성과 절충적인 모더니즘이 주

류를 이루고 있고 넷째, 시적이고 낭만적인 감성이 빛과 색채 그리고 한정된 재료의 사용으로 작가의 주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지역적 한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 1997).

또한 멕시코 현대건축은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스페인 식민시절의 질적으로 우수한 많은 문화와 종교적인 기념물들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빛, 공간, 색채, 비례 그리고 운동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른 것들과 분명하게 구분시키고 있고, 기본적인 조형적 개념을 반영하는 근대성과 문화적 역사성의 종합을 볼 수 있다(Contemporary Mexican Architecture 1994).

3.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철학 및 특성

3.1. 건축 철학

루이스 바라간은 정규 건축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1924-1926년의 초창기에 그는 유럽여행을 통해 여러 건축물과 조경을 접하게 되고 많은 주택을 설계한다. 그 후 다시 유럽과 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 유럽에서 르 꼬르뷔제의 건축물을 접하게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그곳의 풍경, 토속신앙, 그리고 삶이 녹아 있는 건축물 등 환경자체에 큰 감명을 받게 된다. 1940년대에는 그만의 성숙한 건축경향을 보이면서 건축가, 조경가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멕시코 화가인 제수스 추초 레이어스(Jesus Chucho Reyes)로부터 멕시코 전통적 특성을 많이 배우게 된다.

내 집은 나의 은신처이다. 그것은 편리함만의 냉정한 건축이 아니라, 감성적인 건축인 것이다(Emilio 1982)라는 말과 같이 그는 자신의 건축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순수한 자기직관과 건축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제주의 건축을 추구하다 1945년 이후 멕시코 전통에 근거한 신비적인 이미지의 영적 아름다움과 공간 속에 평온함을 추구하는 ‘감성적 건축 공간’을 창조하였다(송 2007).

3.2. 건축 특성

루이스 바라간은 프리츠커상 수상 연설에서 “나의 건축은 자서전적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건

축은 이론적인 체계보다는 감성적인 건축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건축 철학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경험으로 인해 얻어진 요소들이 직관을 통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라간 건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사고 형성 배경이 되는 멕시코의 지역적 특징을 탐구한 후, 그가 경험하고 만났던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그의 건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3.2.1. 지역적 특성의 반영

3.2.1.1. 벽을 통한 정체성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멕시코는 강렬한 태양과 건조한 기후를 갖는다. 멕시코 건축의 육중하고 두꺼운 벽체는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낮 동안의 햇빛에 의해 실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박과 김 2005).

바라간에게 벽은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건축구조이다. 바라간은 자신이 항상 신경쓰는 고독과 평온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벽을 한번 이상 옮긴 경우도 더러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바라간 건축에서 벽들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이며, 그것들의 재료와 색채는 다른 건축과 명백하게 구별된다.

벽들은 공간의 경계를 표시할 뿐 아니라 크기와 비례를 규정한다. 벽은 태양을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에 의해 바뀌는 속성이 있으며, 그림자들은 색채를 강화시키는 존재이다. 벽들의 표면은 결코 매끄럽지 않고, 두꺼운 플라스터(Plaster)로 마감되어 견고하고 뚜렷한 질감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바라간 건축에서 벽의 특징을 나타내 준다. 한 면의 유색 벽은 추상적 인공물과 같으며, 그 효과는 시선의 연장선상으로 강조된다(Daniele Pauly 2002).

바라간 건축에서 벽은 크게 3가지 종류와 의미를 갖는다.

* 개구부가 없는 벽 : 기후로부터의 보호, 가로로부터의 보호, 인간의 명상과 안식을 위한 내향성을 지양하는 공간 형성에 기여한다(Fig. 1).

* 개구부가 있는 벽 :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깊은 처마 대신 안으로 후퇴시킨 작은 창, 조망



Fig. 1. Luis Barragan House.



Fig. 2. Antonio Galvez House.

을 위한 것이 아닌 빛의 조절을 위한 틈이 없는 채색 유리창(Fig. 2).

* 격자 벽 : 빛, 시야,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공간의 여과를 위한 것(Fig. 3).

3.2.1.2. 파티오(Patio)

멕시코 건축에서 열을 식히기 위해 보통 집 뒤쪽에 있는 테라스인 파티오는 바라간의 건축에서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담은 장소로 새로운 의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현이 이루어진다. 그의 건축은 자기성찰의 내향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그의 건축에서 사색 공간의 존재로 반증이 되는데, 파티오는 건물의 외부인 가로공간에 대해 차폐적인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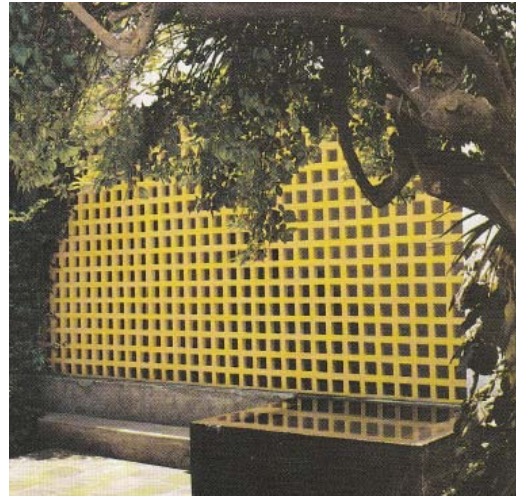


Fig. 3. Chapel for the Capuchinas.

면, 주생활공간을 향해 열려있는 내향적 공간의 특성을 가진다.

3.2.1.3. 감성적 색채

멕시코 건축에 나타나는 화려한 색감은 바라간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건축 사이의 연관성을 형성하고 랜드스케이프를 창조한다.

바라간의 건축에서 강렬한 색채는 태양과 물과 상호작용하여 벽체의 재질을 강조하며 내부공간의 표정을 다양하게 한다. 바라간은 하나의 벽에 단일색을 사용하였으며, 이 색들은 주변의 꽃과 나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거나, 보색대비를 이루어 자연과 함께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겐빌리아 꽃의 짙은 핑크와 태양을 상징하는 노랑, 하카란다 꽃의 연보라는 바라간의 주택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Figs. 4, 5).

그의 건축물에 사용된 색채는 “내 어린 시절 기억의 대부분은 우리 집이 가지고 있던 시골농장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언덕에 인디언 토속주택이 많이 있던... 그곳의 땅 색깔도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웠는데 흙 색깔이 붉은 색이어서 더욱 그랬습니다.”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의 자연과 토속적인 감성으로의 연결 매개체이다.



Fig. 4. Flower.



Fig. 5. Flower.

3.2.2. 동시대 건축가와 화가의 영향

1920년대는 르 꼬르뷔제와 발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옹호 받는 근대 건축의 국제주의 양식이 유럽에서 혁명을 일으킨 시기였으며, 획일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확산되었다.

바라간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들의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1930년 멕시코시티로 옮겨 국제주의 스타일 건물을 설계하면서 멕시코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1936년에서 1940년 사이에 약 20여 채에 달하는 기능주의 양식의 주택과 아파트들을 설계한다. 근대의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바라간 건축은 신비로운 미니멀리즘과 전성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단순성을 완성하게 된다.

제수스 추초 레이어스(Jesus Chucho Reyes)는 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 소박하고 원시적인 그림을 주로 그린 멕시코 태생의 화가로, 인생과 예술



Fig. 6. Art Work of Jesus Chucho Reyes.

에 대한 그의 철학을 바라간과 공유하게 된다. 특히 바라간의 고향(Guadalajare)에 있는 인디언 토속마을의 소박한 주택에 똑같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바라간은 1940경 성숙된 건축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1943-1950년까지 El Pedregal을 설계하면서 제수스 추초 레이어스와 함께 일하는데, 이를 계기로 멕시코 전통 요소에 다시 애착을 갖게 되고, 폭넓은 색상들을 가지고 실험하게 된다 (<http://en.wikipedia.org>) (Fig. 6).

그의 작품은 수준 높은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담한 색채를 사용했다. 그것은 멕시코 전통 예술, 식민지시대의 예술, 라틴아메리카의 예술과 더불어 대중 건축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초현실주의로 묘사되었고, 절제된 형태들은 표현주의로 규정짓는다.

“건축가에게 어떻게 보느냐가 아는 것의 본질입니다. 본다는 것은 이성적인 분석에 의해 압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확실한 미적 감각

을 통해 순수하게 보는 예술의 어려움을 가르쳤던 ...멕시코 화가인 제수스 추초 레이어스의 은혜를 인정합니다.”(송 2007)라고 한 바와 같이 바라간은 그에게서 멕시코 전통 요소와 절제된 형태에서의 대담한 색채사용을 배우게 된다.

3.2.3. 자연과 인간에 대한 고려(유기적 건축)

바라간의 건축물은 항상 주변 환경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지형학적 고려를 포함한 즉 감적이고 지역적인 사고방식을 보인다. 기념비적인 의미를 다소 포함하고 있는 그의 건축은 멕시코의 자연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멕시코의 건축은 강한 바람 태양 폭풍우 등의 물리적 조건 속에서 투쟁적인 자기반성식의 면을 일치시키고 있는데(GA 48 1979), 이러한 반영이 지역적 접근 법과 동화되어 그의 작품을 특이하게 보여 준다. 바라간은 국제주의로부터 돌아선 후 정원 설계에 몰두하면서 멕시코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카푸친 수녀원의 중정의 화산암으로 만든 연못, 조각적 요소화 시킨 벽, 물, 햇빛 등 요소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건축과 자연의 결합과 동시에 인간과의 결합을 이룬다.

4. 루이스 바라간 건축의 색채 사용 특성

바라간의 색채에 대한 분석에서 세 개의 각기 다른 시점에 주목할 만하다(Daniele Pauly 2002). 첫 번째 시기는 1940년대 초 그가 Calle Francisco Ramirez에 처음 집을 지었을 때이다. 그때 바라간은 색채의 표현적인 힘을 주장한 Chuco Reyes를 처음 만났는데 그 후 그는 건축의 모든 외관을 분홍색으로 덮는 전통 민속 주택의 색채계획을 사용하였는데, 농도를 약간씩 달리하여 이웃해 있는 몇 개의 주택에 적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을 연관시켰다.

두 번째 시기는 Studio House 시기와 일치한다. 바라간은 신중하게 빛과 색 그리고 공간의 관계를 조절했다. 주로 유색의 유리를 이용하였는데 바라간은 이것을 핵심이 되는 장소에 놓았다. 그는 또한 흰 벽에 색이 반사되면서 시시각각 색조가 변



Fig. 7. Luis Barragan House.

화하는 효과도 실험하였다.

마지막 시기는 앞의 두 시기의 정점이었다. 이것은 Gilardi House에 압축되어 나타난다. 거기서 바라간은 상호작용하는 색채평면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였고 색채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4.1. 색과 공간의 상호작용

4.1.1. 색-빛-공간(유동적인 색채)

Studio House에서 바라간은 복도와 같이 제한된 공간에 색을 실험했는데, 이에 따라 계단 꼭대기에서 건축가의 침실로 가는 좁은 통로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즉, 침실 반대쪽 안쪽 벽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이 색조는 반대편의 흰색 회반죽의 벽으로 반사되었다. 이 벽은 날씨에 상관없이 복도를 밝게 해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사된 노란색의 농도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Fig. 7).

색의 반사를 만들어내는 이 같은 원리가 Galvez House에서도 이용되었다. 그곳의 홀, 테라스, 거실입구 그리고 계단의 한쪽 벽이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다. 건물 내부의 흰색으로 회백칠 된 다른 벽들에 분홍색이 맴돌며 결국 Mathias Goeritz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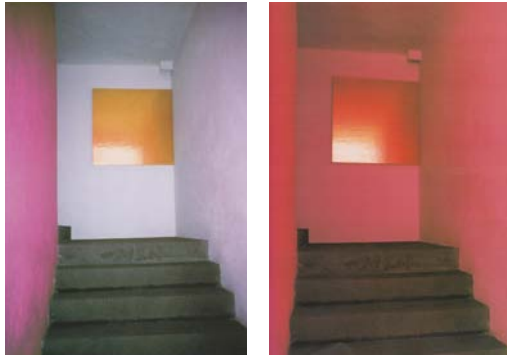


Fig. 8. Antonio Galvez House.

려 놓은 금색 나뭇잎에 그 빛이 투영된다. 햇빛에 의해 반사된 분홍색의 농도가 시간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하여 공간에 극적인 효과를 연출한다(Fig. 8).

Francisco Gilardi의 주택에서 바라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얀 빛의 수직 부분에 계층효과를 만드는 실험을 계속했다. 동시에 그는 색이 물위에서 얼룩지는 방식을 연구했고, 색의 병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탐구했다(Daniele Pauly 2002). 그는 또한 동일한 시선에서 빛에 의해 노랑과 파랑 그리고 빨강과 파랑, 세 개의 기본색의 효과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의 강도에 의해 변화하는 기본색이 공간에서 어떤 시각적 효과를 내는가에 주목했다(Fig. 9).

Gilardi House 오른쪽 앞 복도에서 집안까지 해가 비치는 분위기가 장관이다. 그것은 복도에서 발산되는데 위로부터 발끝까지 밝은 노란색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햇빛은 전체 벽을 따라 수직 슬릿을 통해 공급된다. 색이 입혀진 빛은 그 다음에 안쪽 벽으로 투영되고 흰색 회벽칠에 달라 붙는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인 밝은 색조를 가미하며, 시간에 따라 그 농도는 변화한다(Fig. 10).

폴장의 두 개의 코발트블루 빛 코너와 수영장으로 뻗어 있는 평면의 붉은 기둥은 현저한 대조를 만들어 낸다. 더위와 추위사이의 충돌이 극적으로 초현실적인 감각을 형성하며 각각을 강조한다. 빛은 천장의 구멍으로부터 나와 흐르고 색들을 더 선명하게 해준다. 반짝이는 광선이 물, 파란벽을 스쳐 지나가며 강렬한 색을 조정하고 강조한다. 또



Fig. 9. Francisco Gilardi House.



Fig. 10. Francisco Gilardi House.

한 회반죽 조각을 강조하고 동시에 벽을 모호하게 한다. 빛이 때때로 방의 코너를 왜곡하고 내부 부피의 추상적인 성격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빛은 색의 질감과 감각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Fig. 11).

4.1.2. 공간의 기하학적 특성

Gilardi House 폴의 표면은 주변 환경들을 비추는데, 이때 무한한 색이 무한히 더해진다. 시선에 따라 두 개의 파란 벽은 빛의 박스를 만들기도 하고 방의 코너를 없애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빨간 기둥은 파란색 배경에 놓여 가까워 보인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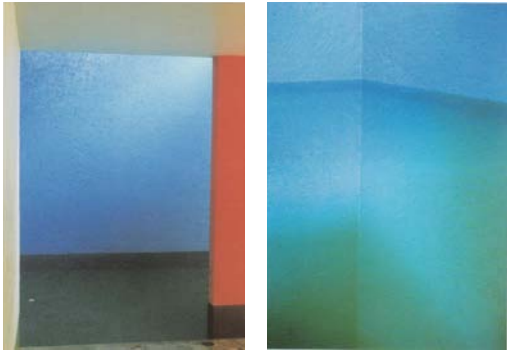


Fig. 11. Francisco Gilardi House.



Fig. 13. Luis Barraga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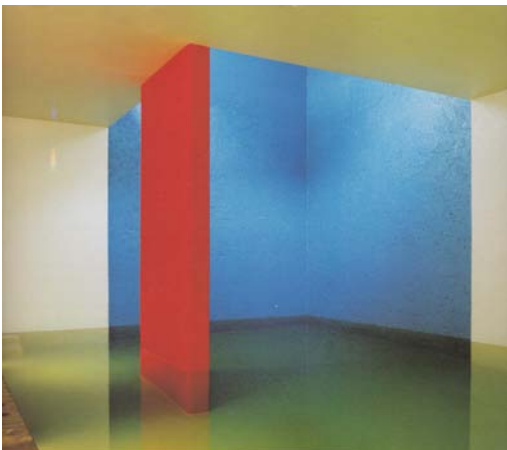


Fig. 12. Francisco Gilardi House.



Fig. 14. Prieto Lopez House.

리고 어떤 위치에서는 두꺼운 돌출된 벽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색은 기하학적 모양으로 환원되는 공간 구성을 보인다. 색채 및 선형작용은 물이 벽에 투영됨으로서 강조되고 삼차원 그림으로 보이는 것을 돋보이게 한다(Fig. 12).

야외의 방으로서 작용하는 공간에서 색이 볼륨을 돋보이게 하고, 조각적인 양상부를 만들어낸다. Studio House의 지붕 테라스가 대표적이며 이는 다양한 높이의 벽들로 둘러싸여 있고 고대 타워 모양을 되살린 고상한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다. 색상은 조각적 효과를 추가했고 직교배열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았다. 전체의 비율은 기념비적 느낌을 낳았고, 기하학적 형태는 크고 색칠된, 빈 공간을 완전히 둘러싸는 사각형에 의해 강조된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그림자에 의해 더 강조된다

(Fig. 13).

Prieto Lopez House의 뜰 입구에서도 평면 볼륨과 입체의 정도가 색에 의해 강화된다. 입구의 벽은 바라간이 제일 좋아하는 마젠타 색으로 덮여 있고, 나머지 벽은 황토색으로 덮여있다. 이 두색의 대조는 기하학적 정밀도를 강조시키는 효과를 준다. 벽의 밝은 색상은 검은 화강암 바닥을 밝게 해주며, 그림자를 흡수하고 안뜰의 공간적 볼륨을 줄여준다(Fig. 14).

4.2.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

바라간의 색채계획은 멕시코 전통 색인 밝은 분홍색, 금빛 노란색, 황토색, 남색, 코발트 블루 그리고 보라색을 포함한다. 그는 분홍색과 노란색을 인접한 표면에 병치시키는 것을 좋아했다(Daniele



Fig. 15. Barragans Architectures.



Fig. 16. San Christobal.

Pauly 2002) (Fig. 15).

멕시코 교외 Egerstrom가에 마구간, 수영장이 있는 큰 규모의 주택인 San Christobal을 설계하였다. 이 건물은 말의 스케일에 따라 벽이 세워졌으며, 수공간의 물은 마구간 입구 한곳에 돌출된 벽을 보호하는 황토색 벽의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나와 pool에 공급된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볼륨을 한정짓는 서로 다른 높이의 평면에 여러 층의 연속된 멕시코의 전통 색인 부감빌리아 꽃의 색인 분홍색, 하카란다 꽃의 보라색 조합이 멕시코의 자연과 토속적 감성으로 연결하는 색채로서 구성되어 있다(Fig. 16).

4.3. 색의 물리, 심리적 특성

바라간은 처음에 멕시코의 강렬한 태양 빛으로부터 실내공간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는 빛을 적게 받는 내부공간에 햇빛을 선택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붓 터치가 남아 있는 색칠된 유리 못지않게 고명도의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의 판유리를 이용했다. 바라간은 Chocho Reyes로부터 기법을 빌렸는데, 이 기법은 굉장히 밝고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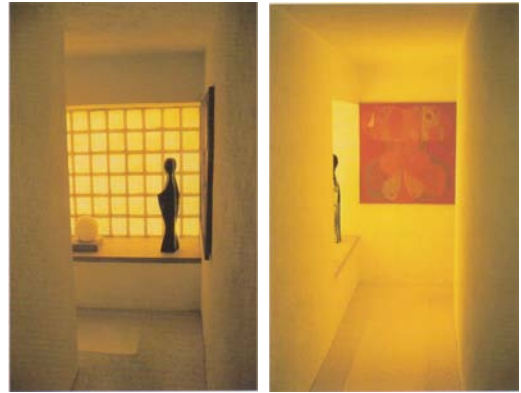


Fig. 17. Prieto Lopez House.



Fig. 18. Chapel for the Capuchinas.

빛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공간에 빛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이므로 색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Daniele Pauly 2002) (Fig. 17).

Capuchin과의 예배당 단순한 목재와 거칠은 질감의 육중한 stucco벽이 디자인의 주 요소이며, 태양광선 중 노란색 광선만을 추출하여 예배실 공간을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내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에서의 노란색은 빛을 통해 여과된 색으로 수도원의 가져야 하는 이미지인, 성스럽고 축복의 공간임을 색의 심리적 효과로 전환하여 계획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Fig. 18).

5.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루이스 바라간 건축에서의 색채사용방식은 그의 건축철학인 ‘감성적

인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건축가보다도 색채의 특성을 공간에 잘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의 색채 사용방법은 그의 경험으로 인해 얻어진 직관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색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빛에 의해 공간에서 변화하는 색채계획을 함으로서 유동적인 색과 그것을 담은 공간으로 인해 거주자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유동적인 빛과 색채를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벽면에 투영된 빛의 강도, 물에 비치는 색의 변화된 농도에 의해 공간이 하나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특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간결하고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공간에 입체감을 형성함으로써 그 공간의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전해 주는 경험의 극대화를 연출한다.

셋째, 벽면에 따라 단순한 재료와 다른 색상을 계획함으로써 색과 그림자에 의한 볼륨감을 만들고 있어, 형태를 생성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색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멕시코 전통 색인 분홍색, 노란색, 황토색, 코발트블루를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과 조화된 색채계획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멕시코의 자생식물인 부감빌리아와 하카란다 꽃의 색을 건축물의 실·내외에 사용함으로써 색을 통한 실·내외 공간의 연속성을 나타낸다.

다섯째, 멕시코의 강렬한 햇빛을 내부공간에 이용하여, 빛이 필요한 공간에 유동적인 빛과 색을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 색의 물리적, 심리적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에서의 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루이스 바라간 건축에서 사용된 색채의 특성은 '감성적인 건축 철학'과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라는 자서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시간성을 반영한 유동적인 색채의 사용, 색의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공간에 적용, 공간의 기하학적 특성을 부각시키려 하는 형태생성요소로서의 색, 자연물과 건축물과의 색을 통한 아이덴티티 부여에 의한 그의 독창적인 색채사용방법은 건축 실내외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석철. 2001. 20세기 건축. (주)생각의 나무. 226쪽.
- 박혜진, 김형우. 2005. 루이스 바라간 주택 건축에 나타난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1): 102.
- 송준호. 2007. 프리츠커상을 빛낸 현대 건축가. 대가. 20쪽, 30쪽.
- 이일형. 1997. 멕시코 현대 건축의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23쪽, 233쪽, 234쪽.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2 MEXICO. 예일미디어. 8쪽.
- CONTEMPORARY Mexican ARCHITECTURE. 1994. SEOUL ARTS CENTER. 1-10쪽.
- Daniele Pauly. 2002. Barragan space and shadow. walls and colour. Birkhaeuser. 182-183쪽, 188쪽, 191쪽.
- Emilio Ambasz. 1982. The Architecture of Luis Barragan. MOMA. 8쪽.
- PROCESS 37. 1983. Modern Mexican Architecture. 149쪽.
- <http://en.wikipedia.org>.